

세계에 자랑할 민족문화의 꽃

기념비적 전적류 수두록 ... 국보 43점, 보물 275점

목판인쇄 1300년, 금속활자인쇄 700년. 우리 겨레의 문화유산 가운데서도 책의 문화야말로 가장 자랑스러운 민족예지의 결정체이며 지적 자산이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계를 향해 큰소리칠 수 있는 민족문화의 꽃이자 인류문명의 깃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 인쇄술이 출현하기 전에는 신라시대의 사경(寫經)에서 보듯 필사가 성행했다. 이것이 목판인쇄 → 활판인쇄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책의 문화도 찬연한 꽃을 피우게 된다

현존하는 목판인쇄물의 원조는 8세기 중엽에 인쇄된 <구구정광 대다라니경>이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통틀어 가장 오래된 인쇄물인데, 지난 1966년 경주 불국사 석가탑 속에서 발견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다. 그때까지는 일본의 <백만탑 다라니>(770년경)가 세계 최고(最古)의 인쇄물로 공인됐었으나, 석가탑이 세워진 해가 751년(신라 경덕왕 10년)이니 우리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죽달불금'인 셈이다.

문헌기록상 우리나라에서 금속활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인 13세기 초엽의 일로, 구텐베르크의 것(1450)보다 200여 년이나 앞선다. 그러나 지금 남아 있는 고려시대 금속활자본은 <불조지지심체요절>이 유일하다. 이 책은 1377년(고려 우왕 3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된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에 있다.



목판본인 <훈민정음>(1446·국보 70호)과 활자본인 <동국정운>(1447~8·국보 142호).

비단 국보·보물로 지정된 것만이 중요한게 아니다. 우리 선조들은 오랜 세월 독창적인 지혜로 책문화를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책의 문화유산은 그야말로 무진장하다.

지난 1962년에 처음 제정되고 82, 88년 두차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우리의 문화유산 중에서도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유형문화재를 '국보'로, 그에 버금가게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해놓고 있다. 1996년말 현재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유형문화재는 각각 287점과 1,239점. 그중 전적류(典籍類:고문서

제외)는 국보 43점에 보물 275점이다.

전적류란 사경을 비롯, 고문서·고본(稿本)·경판(經板)·목판본·활자본 등을 두루 일컫는다. 그중 사경은 불경을 신앙 차원에서 베껴 쓴 것으로 신라·고려때 성행했다. 가장 오래된 것은 755년에 씌어진 <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이다. 경판은 해인사의 <고려대장경판>이 좋은 예이고, 고본은 목판이나 활자로써 간행되기 이전 원고상태의 책으로 서에 유성룡의 <징비록>, 충무공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비롯해 고위관료나 학자들의 일기·견문록 등에 많다.

비단 국보·보물로 지정된 것만이 중요한게 아니다. 우리 선조들은 오랜 세월 독창적인 지혜로 책문화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책의 문화유산은 그야말로 무진장하다. 올해 '문화유산의 해'에 즈음하여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호에 이어짐>

출판저널

통권 제205호/1997년 1월5일 발행

발행인 — 정진숙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준환
 편집주간 — 이승우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박남정 마정미
 최성일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김지옥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 — 최학수
 총무부장 — 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딱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일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컴퓨터 조판 & 바코드

- 서체견본을 보내드립니다.
- 홍익에서 개발한 S/W 및 보강된 내용
 - 사전 및 색인 자동분류프로그램(한글·한문·영문혼용)
 - 바코드출력 S/W (ISBN·ISSN·등재부) 및 WP 변환S/W
 - 조합될 수 있는 모든 한글·한문 처리, 약물 5000종 추가
 - 한글 33종, 한문 17종(교과서체4종), 러시아어 8종, 일본어 8종 추가
- 홍익의 시설
 - 편집입력기 30대 · 출력기 3대

바코드인쇄원판제작이용안내 : 전화나 FAX를 이용하시어 발행지번호서명식별번호부기호만 알려주십시오.

弘益컴퓨터印刷(株) 마포구 서교동 337-25 장수빌딩 2층
 弘益電子出版研究所 ☎ : 323-6333~5 FAX : 337-0460

'96 디자인의



표지 디자인, 광고 디자인, 정기간행물 편집, 카타로그, 사보 기획 및 제작

불타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새로운 디자인으로 승부하려는 디자인 예원이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으로 쌓인 Know-how. 출판디자인의 오아시스를 열어가겠습니다.

디자인 예원이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9 (204호)
 TEL: 548-5420, FAX: 3444-1515

DESIGN 藝園